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도자료

2024. 6. 20.(목)

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김준섭

전화 051-606-4164

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이동현

전화 051-620-6400

코카인 33kg 밀반입 사건 수사 결과

- 냉동컨테이너에 은닉된 시가 165억 원 상당 대량 코카인 전부 압수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
- 부산지검 「마약범죄 특별수사팀」(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윤국권)은 부산 본부세관과 공조하여, 2024. 4. 7.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 發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33kg을 적발, 전량 압수하였음

* 코카인 : 볼리비아, 페루, 콜롬비아 등 남미 일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천연마약

** 1회 투약분 0.03g 기준 약 110만명 투약 가능한 양, 소매가 환산시 약 165억원 상당

- 부산지검은 부산 본부세관, 미국 마약단속국(DEA)과 공조하여, 신속히 화물 수입업체, 컨테이너 선사, 운송대행업체 등 관련업체 압수수색 및 담당자 조사, 컨테이너 경로 확인 등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,

- 국내에서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이 확인되지 않고, 코카인의 실제 목적지가 대한민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여, 사건을 종결하고 코카인을 폐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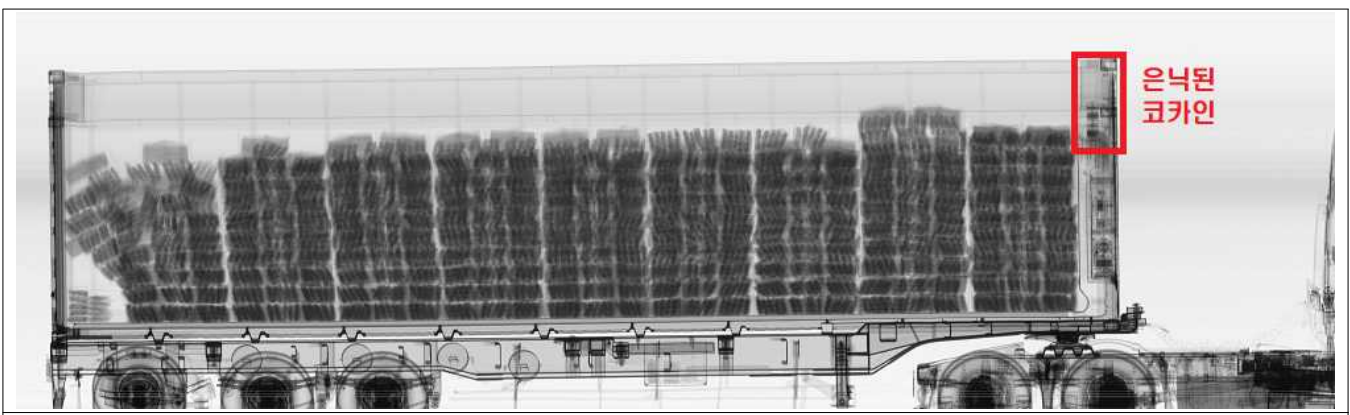
※ 컨테이너의 과거 경로 추적 결과, 국내 입항 전 본건 컨테이너가 '브라질 산토스항'에서 출발, '모로코 탕헤르항'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는데, 위 경로는 유명 코카인 밀반입 경유경로(중남미→모로코→유럽)로, 해외 코카인 밀수사범들이 본건 코카인을 '모로코 탕헤르항'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리나라까지 컨테이너가 반입된 것으로 추정됨

- 앞으로도 부산지검은 세관, 미국 마약단속국(DEA)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마약 밀수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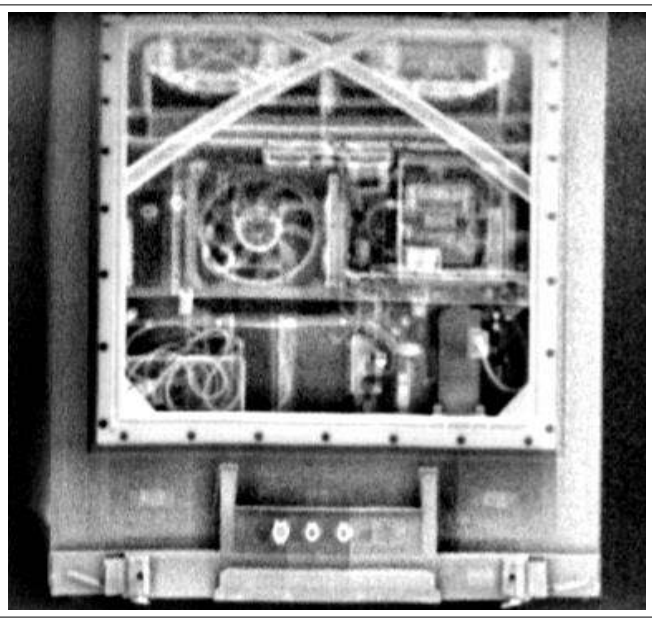
I

사건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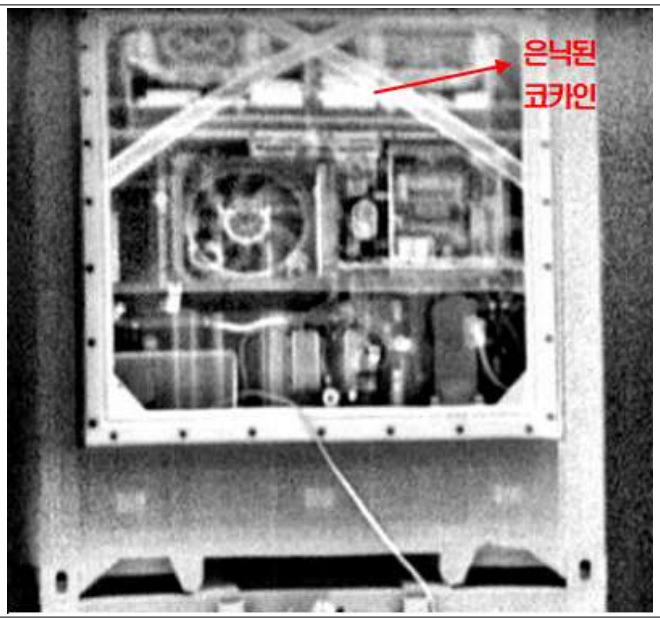
- '24. 4. 11. 부산본부세관, X-ray 검사로 냉동컨테이너에서 이상물체 확인, 컨테이너 개장 후 내부 판넬 해체하여 코카인 33kg 적발
- 본건 컨테이너는 '24. 2. 29. 미국 중부 켄자스시티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육류를 적재한 후 열차를 이용해 '24. 3. 10. 미국 서부 롱비치항으로 이동, 화물선에 선적된 후 '24. 4. 7. 한국 부산신항으로 입항 후 하역
- 코카인은 사각형 벽돌모양으로 압축되어 갈색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고 (벽돌모양 30개, 개당 약 1.1kg), 코카인 및 컨테이너에서 GPS 위치추적장치 등은 발견되지 않음



컨테이너 X-ray 촬영 (횡단면)



컨테이너 X-ray 촬영 (종단면)
- 정상 컨테이너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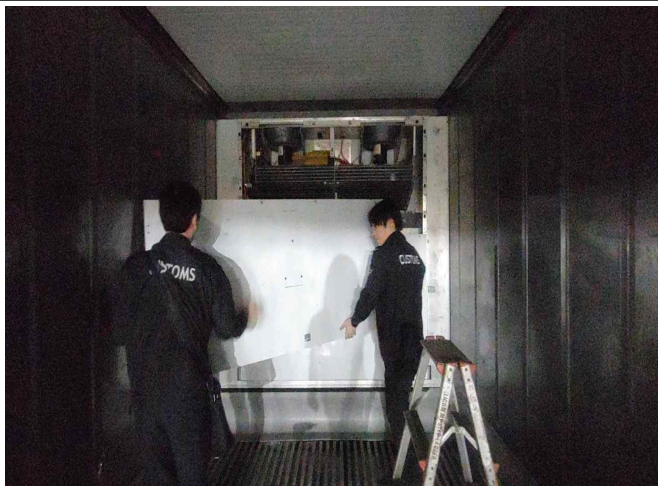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 X-ray 촬영 (종단면)
- 코카인 은닉된 컨테이너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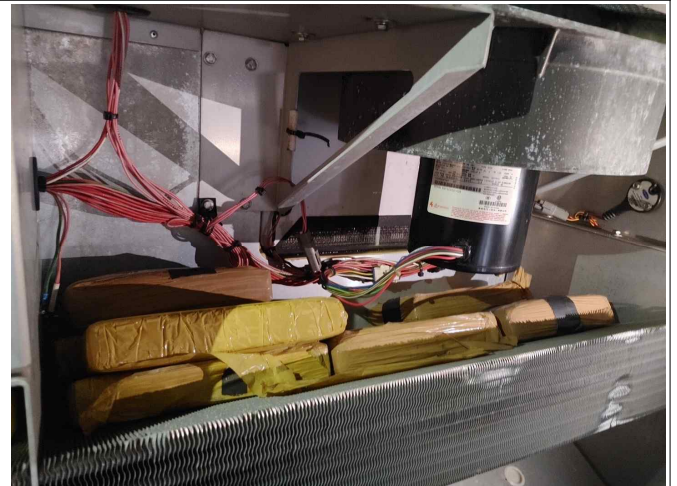
① 냉동컨테이너 출입구



② 냉동컨테이너 개방 후 화물 적출



③ 냉동컨테이너 내부 판넬 해체 작업



④ 벽돌형 코카인 발견

II 수사 경과

- '24. 4. 7. 부산신항에 코카인 은닉된 본건 냉동컨테이너 양륙
- '24. 4. 11. 부산본부세관, 코카인 33kg 적발
부산지검, 수사착수(코카인 압수, 컨테이너 경로 추적)
- ~'24. 6. 7. 부산지검, ▲컨테이너 선사(국내지사)·화물 수입업자·물류
대행업체 등 관련업체 압수수색, ▲각 업체 담당자 조사,
▲코카인 포장 비닐 등에 대한 지문·DNA 감정의뢰 등
- '24. 6. 18. 부산지검, 수사 종결 및 압수물 폐기 처분 결정
- '24. 6. 19. 부산지검, 코카인 전량 소각 폐기



수사 결과

- 본건 냉동컨테이너에서 코카인 적발하여 압수한 후 컨테이너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컨테이너 주변에서 잠복수사하였으나, 컨테이너에 접근자가 확인되지 않음
 - 본건 냉동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컨테이너 소유업체·화물 수입업체·수입업체의 물류대행업체·창고업체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결과, 국내에서 본건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이나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음
- ※ 미국 마약단속국(DEA)과 공조하여 미국내 육류 수출업체, 선적과정 등을 확인 하였으나, 육류 수입과 코카인 밀수범행의 관련성 인정할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음
- 본건 냉동컨테이너는 글로벌 해외 물류업체의 소유로, 화물 적재된 후 여러 화물선 또는 열차에 선적되어 전 세계를 이동하였고, 특히 2023. 6. 22.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화물선에 선적되어 출발하여 2023. 7. 9. 모로코 탕헤르항에 도착한 경로가 확인되었는데, 이는 코카인이 밀반입 되는 주요 경유 경로(중남미→모로코→유럽)인 점, 대량 코카인 밀수 사건에서 발견되는 밀수조직의 GPS 위치추적기가 본건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단기간 항로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우리나라가 코카인의 대량 소비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,
- 해외 코카인 밀수사범들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된 코카인을 '모로코 탕헤르항' 하역 후 계획대로 회수하지 못하여, 코카인이 그대로 방치된 채 우리나라까지 반입된 것으로 추정됨
- ※ 최근 '24. 1.경 부산에 입항한 화물선 '시체스트'에서 발견된 코카인 100kg 사건 역시 화물선의 출발지가 브라질 산토스항이었음

- 위와 같이 국내에서 본건 밀반입에 관여하였다는 인물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,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, 수사 실익이 없어 수사를 종료하되, 관련 수사정보는 브라질과 모로코 수사당국에 전달 예정임
- 압수한 코카인은 향후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, 33kg 이상의 대량으로 보관상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점, 국내 유통될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, 신속히 폐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024. 6. 19. 전량 폐기함

IV

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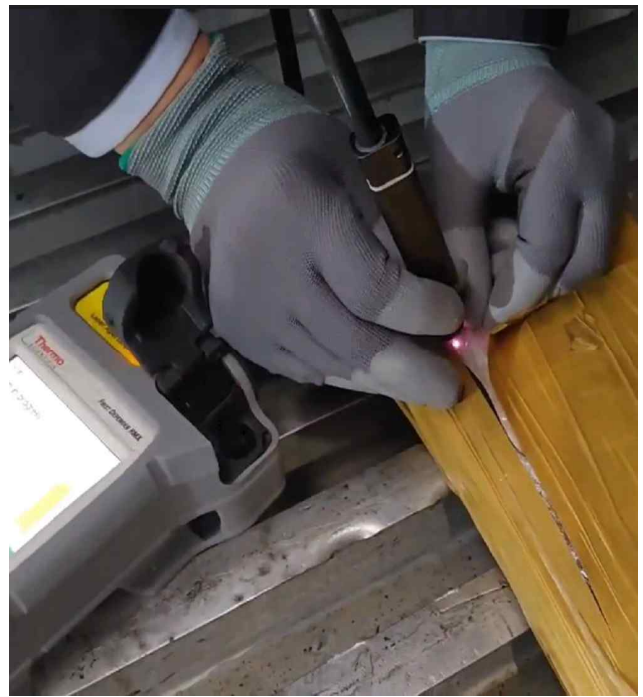
-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세관, 미국 마약단속국(DEA)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대규모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음 ■■■

<별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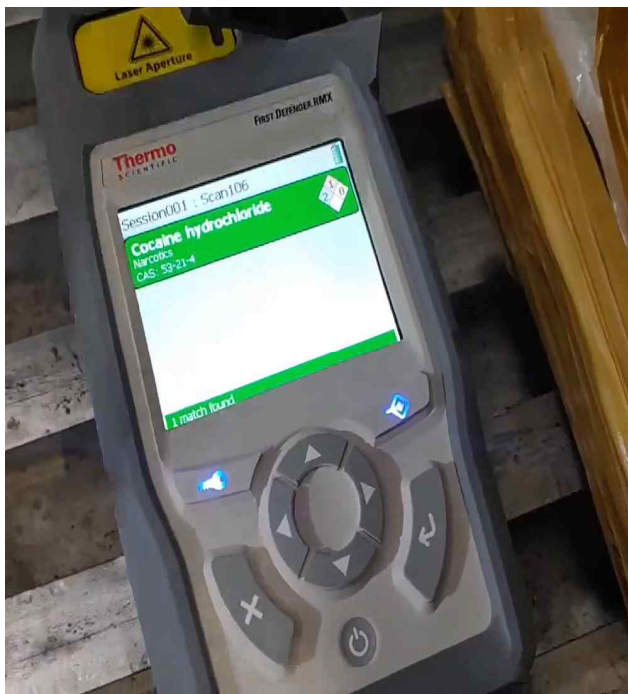
압수물 사진



벽돌형 코카인 30개 중 1개



마약 성분 확인



코카인 성분 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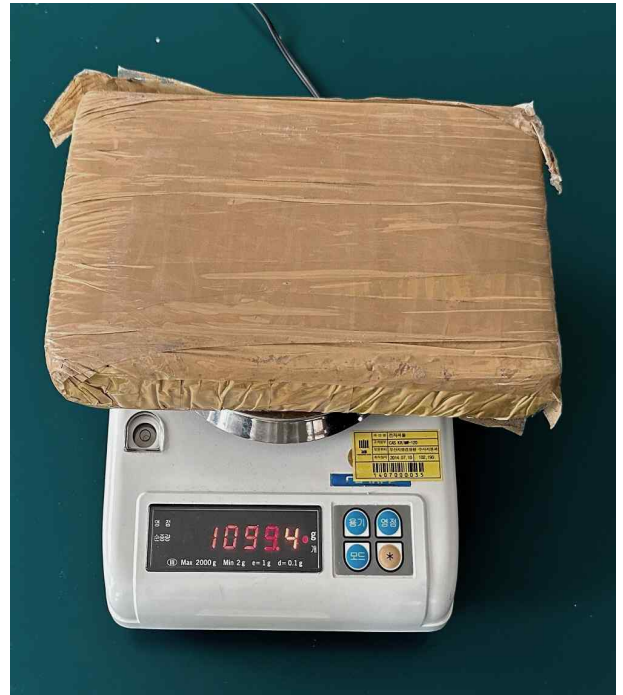


마약 간이키트 검사 결과 (코카인 양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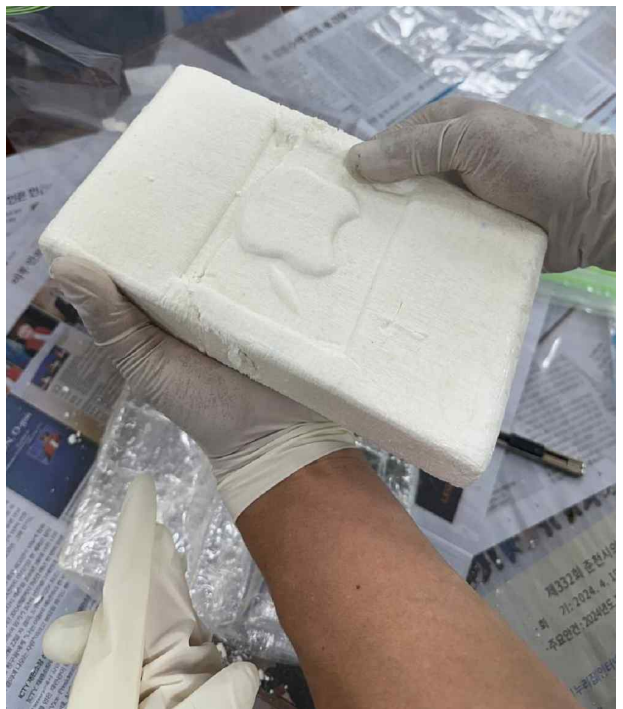
압수물 사진



압수한 벽돌형 코카인 총 30개
무게 총량 33.147kg



벽돌형 코카인 1개당 무게 약 1.1kg



포장지에서 분리한 코카인